

OG8) 전통 마을에 반영된 생태적 건전성과 환경설계원칙

신상섭 · 노재현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1. 서 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14개 국가정상 및 178개국 정부대표, 민간단체 등이 참석한 지구환경보호 및 개발에 관한 환경정상회의로 지구 환경의 지역적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리우선언'과 환경보호를 위한 '의제 21', '지구 온난화 방지 기후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을 발표), 1996년 유엔인간정주회의를 거쳐 Istanbul+5, Rio+10회의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엔인간정주회의(UNCHS)는 범세계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정주환경 계획지표 및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배경과 형편에 맞게 지속가능한 정주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주변 환경이나 생태계에 커다란 악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문화공동체를 구축해온 사실에 주목하여, 최근에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경향, 즉 환경 친화적인 공간구조의 틀 속에서 사회적 건전성과 문화적 지속성을 강조하는 신전통주의 사조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또한, 신전통주의 시대사조 속에서 우리의 전통마을과 같은 정주환경에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하나의 살림집과 농경지, 배후지 등이 토지수용력 범위 내에서 교묘히 결합되어 공동체 사회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이루어내는 삶터로서의 교훈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옹기종기 어우러진 살림집들은 마을의 자연환경구조와 유기적으로 잘 엮어지며, 구불구불한 마을길과 물길, 농경지 등은 원래의 지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편리성을 합목적적으로 잘 결합시켰고, 정자와 재실, 堂木(정자목)과 마을숲(洞藪 grove와 邑藪) 그리고 뒷동산, 계류수와 연못 등은 공동체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실존공간이자 신앙공간이 되며 생태적 합리성을 넓혀나가는 건전성 요소가 됨을 발견하게 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탐색을 통한 선조들의 환경인식 그리고 생태적 관점과 생태적 요소들의 상관성을 토대로 연구의 타당성을 모색



그림 1. 비봉산과 감천을 배산임수하여 자리한 선산부 읍치 지방도(1872년), 감천 북쪽 10리 길이에 수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邑藪(마을숲)인 冬至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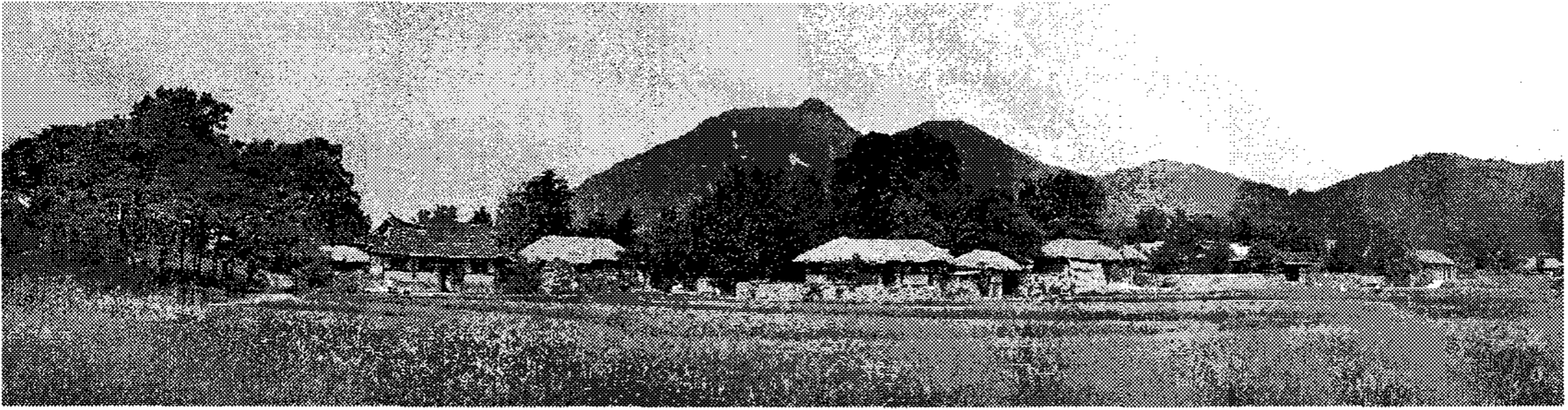


그림 2. 생태적 건전성과 환경 윤리적 규범성이 깊숙이 작용되고 있는 아산 외암마을은 설화산을 배산하여 집단 취락이 유기적으로 잘 엮여진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였으며, 전통마을 입지와 관련한 공간구성 요소들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추적하여 환경설계 원칙들을 도출하였다. 한편, 전통마을에 작용된 환경설계원칙을 추출하기위해 사회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현원칙과 구현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환경설계원칙으로 자연과 화합하는 생태적 공간, 환경설계의 밑그림 풍수지리, 기승전결의 율동적 환경인식 체계, 공간의 쉼과 교직된 動과 靜의 역동성, 주중첩의 위계를 相和하는 공간구조, 은유적 탐미관이 반영된 생태적 미학 공간, 인간적 척도를 반영한 시계열적 공간 등 7가지 원칙을 추출하여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전통마을과 정주지 환경의 생태적 관점으로 추출된 환경설계 원칙의 실제 구명은 물론 전통적 환경계획원리와 설계원칙을 구명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생태적 관점에서 본 전통마을의 환경가치

전통마을은 인간과 자연의 역사가 공간상에 투영된 역사경관으로 이해된다고 할 때 自然景觀과 文化景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문화경관은 역사, 문화, 생활양식 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공간상에 투영된 결과이며 토지이용의 정주패턴 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 규범, 토지에 대한 태도 등이 중첩되어 토속적인 경관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속적인 역사경관 즉, 토속경관이란 민초들의 생활상을 통하여 형성된 문화, 시대와 더불어 전통으로 계승되며 미래의 창조적 삶을 위한 가치판단 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전통마을과 같은 문화경관이 됨을 감지하게 된다.

전통마을의 문화경관은 3가지 측면에서 보전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데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지리 생태적 경관, 사회적 교환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적 경관, 공동체의 이념통합 구실을 하는 상징적 경관 등이다. 마을 입지에 따라 마을 뒷산이나 시내, 서낭당이나 수구막이 등은 마을의 1차 영역을 형성하는 중요 경관지표가 되며, 농경지와 앞산, 묘지 등은 지리생태학적 측면에서 2차 영역이 되는데, 이러한 마을 내외의 산림, 수계, 농경지, 동산과 숲 등이 보전 대상이 된다.

한편, 정주지의 살림집, 마을길과 물길, 마을숲, 마을마당과 쉼터, 우물과 빨래터, 농경지 등 사회적 경관, 성황당, 당산숲과 당목, 장승과 솟대와 같은 민간신앙시설로서의 상징경관,

종가와 사당, 재실, 서당과 서원, 정자 등 혈연 공동체의 이념적 통합이 감지되는 유교적 경관, 마을 주변을 둘러싼 사신사와 명당수, 비보림 등 풍수적 경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기도 하다. 특히 유교적 경관은 사회적 경관지표, 민간신앙요소는 상징적 경관지표, 풍수적 경관은 지리적 경관지표를 겸하는 兩價性을 갖는바 전통마을 문화경관의 가치를 경관문화재로 승화시키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한편,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농촌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반영하는 요소들로 정주가치를 제공하는 농촌다움, 경관미, 정주편리성 등 다차원적 가치를 지닌 자원을 제시 한바있다. 특히, OECD는 농촌자원을 자연적 자원(환경, 자연자원), 문화적 자원(고유한 역사, 경관자원), 사회적 자원(시설, 경제활동, 공동체 활동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농촌 어메니티(amenity, 쾌적성)는 야생지, 경작지



그림 3. 생태적으로 건전한 미학공간을 구축한 강릉 선교장 별당인 활래정과 方池方島形 연못

경관,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을 포함해 자연적인 것이든 인위적인 것이든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가리킨다. 개인과 지역사회 공동체는 그러한 장소와 전통, 즉 어메니티로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바, 농촌 어메니티는 토속적인 향토경관보존을 위한 중요 정책자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3. 전통마을의 환경적 건전성과 사회적 지속성

조선시대 대표적 전통지역이론서인 李重煥(조선 후기 실학자, 1690-1752)의 擇里志 卜居總論에 제시된 정주환경 자리 잡기의 복거 패러다임이자 생태코드라 할 수 있는 地理(환경 지속성 : 水理, 野勢, 山形, 山水), 生利(경제 지속성 : 土壤, 貿遷, 關防), 山水(경관 지속성 : 治山, 治水, 裨補), 人心(사회 지속성 : 風俗, 建置, 營建, 林園)에 근거한다면, 우리 선조들은 정주지 경영에 살만한 땅 즉, 生土에 의미를 부여하여 자연환경의 물리적 조건에 순응하는 친환경적 토지관, 그리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장소 변영의 可居地를 구축하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자연의 생명성과 환경적 윤리성을 반영한 민주적인 친환경 사상의 기저 하에 삶터의 자리잡기와 경영에는 사회적 지속성과 환경적 건전성이라는 환경설계 규범이 작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전통 마을은 山水眞景한 환경 그리고 마을길과 물길을 갖추어 외부와의 접촉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며, 토지수용력 범위에서 유·무형의 문화 환경을 합목적적으로 잘 접속시켜 왔는데, 정주환경의 community design에는 자연에 대한 절제와 환경자원을 중시하는 생태적 건전성 요소들이 중층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그 기운을 상징적으로 승화시켜 가치 있는 삶을 일궈내는 터전

으로서의 전통마을은 산기슭 경사면의 양지바른 곳에 남향하여 배산임수 국면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자연 지세를 고려하여 주거지 조성 및 경작물 재배에 유리한 환경 조건을 찾아 이웃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생활영역 테두리를 설정하는 등 전통 정주지의 공간구조는 토지수용력 범위 내에서 배후지, 주거지, 경작지로 전개되는데,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의미가 큰 배후지는 마을 후면의 산이 되고, 방풍림과 풍치림의 역할은 물론 조상의 묘 자리와 토속신앙 영역이 되며 생활재료와 물을 공급받는 실용공간이 된다. 주거지는 안전성이 보장된 완경사지에 자리하여 여름에는 시원한 남동풍을 받아들이고 겨울에는 차가운 북풍을 제어할 수 있었으며 사생활 보호와 안전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경관적으로 조망과 視界를 고려한 坐向이 결정되었다.



그림 4. 농경지와 마을 숲, 물길 등 생물다양성을 구축한 남원 삼산리의 마을 숲 전경

경작지인 門前沃畝에는 부식용 작물이 재배되었고, 바깥들에는 주식인 벼가 주로 재배된다.

동선의 흐름과 관련하여 마을길은 살림집들의 연결망이 되며 물길과 깊은 관계성을 갖는데, 지형이 갖는 완만한 상승감과 위계에 따라 바깥길, 어귀길, 안길, 셋길 등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커다란 나뭇가지를 연상하게 한다. 한편, 전통마을의 경관구조는 주변 산세와 지형조건에 따라 전후 방향성과 남북으로 주 축선을, 동서방향으로 부 축선을 형성하고, 주거 좌향은 지형조건과 안길 그리고 물길 등 山水의 방향성과 연계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마을길은 단위 살림집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형조건하에 물길을 병행시킴으로서 지표수의 이동 등 배수처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양명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림 5. 건전하게 생태코리도 역할을 수행하는 낙안읍성 해자와 배산인 금전산

특히, 공동체 사회의 질서를 공간적으로 일궈내며 면면히 이어온 씨족마을에는 입향조 또는 향촌의 기반을 구축한 중심인물이 있게 되는데, 안동 하회의 서애(류성룡)와 겸암(류운룡), 경주 양동의 우재(손중돈)와 회재(이언적), 아산 外岩의巍巖(이간) 선생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삶의 여정은 생성·풍요·초월·회귀라는 인생체험 경로(살림집-누정-서당-서원)를 정주환경 네트워크 속에 대입시켜 종가를 구심점으로 씨족 공동체의 사회적 지속성을 구축해 나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번영은 물론 장소번영을 구현하는 합목적적 통일체가 됨을 인지하게 된다.

또한, 마을주민들의 삶과 희로애락을 표현한 공동체 놀이(하회의 별신굿탈놀이와 줄불놀

이, 양동의 줄다리기·서래술놀이·호미씻기, 낙안읍성의 큰 줄다리기와 사명·덕석기 뺏기 그리고 12진법 굿 12마당 지신밟기 등)는 수행주체와 시기, 방법, 위치 등에서 차별화 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민간신앙으로 山神, 농경신, 자녀생산을 주관하는 産神 등 상징적 제의처(상당과 하당, 삼신당)는 건물, 돌탑, 巨樹(당목)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곳은 마을 공동체의 당제, 성황제, 기우제 등을 행하는 신성공간이 된다. 이러한 민간신앙과 놀이문화는 자연을 무대로 마을 공동체의 풍요와 부를 기원하면서 정신적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행동양식으로 표출되어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지속성 요소로 오늘날 까지 면면히 전승되고 있다.

표 1. 전통 마을에 반영된 생태적 지속성 구현 원칙과 체계

구 분	구현 원칙	구현 체계
사회적 지속성	*장소성, 공동체 구현 *자족적, 문화적 지속성 구축	*동족과 이족 또는 계층간 유기적인 공간계획과 동선체계(위계+영역+장소성, 생성→풍요→초월→회귀의 공간경영), 두레, 향약, 대동계, 노동요 등 전승 *신앙, 놀이, 강학, 제례처, 정자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 전승(자연+상징공간+문화공간, 실존+이상향), 물길과 마을길, 생활편익시설 등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적 지속성	*주거+생산+상업+배후지 *유보공간, 재해방지	*주거지, 농경지, 생산지(논, 밭, 과수원), 시장, 배후지(딸감, 경승지, 묘역 등), 지리+생리+산수+인심이 결합된 복거지, 행정, 군사, 교통, 생활의 요충지 *주거지, 농경지의 유연성(수용력 확보), 홍수 등 재해, 재난방지(안전성 확보), 외부로부터의 은폐성, 주민의 보호, 방어(군사, 행정기능)
환경적 지속성	*자연 순응형 입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자연재료의 활용 *생태적가치관, 환경 조성	*풍수지리에 근거한 토지이용, 자연환경의 보존(배산임수+장풍득수, 山+水+方位+人, 北高南低, 내원+외원, 경관+생태+마을), 광역 경관상, 경관관찰점 경영 *에너지 보존 및 자원 재활용, 미기후, 물과 바람 순환, 낮은 entropy 체계 *녹지(환경 숲, 자연+생산녹지), 생태 네트워크(점, 선, 면)와 모자이크 구축

표 2. 전통마을 환경설계에 반영된 생태적 관점

구 분	전통마을 환경설계에 반영된 생태적 관점
정주환경 조성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의 질서체계와 天地人의 합일적 三才美+地母思想이 반영된 福居地 * 생태적 평형원리(음+양, 山+水+方位+사람)를 존중하는 유기체 공간 * 실존+이상향 =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족적 삶의 경영 * 범신론적 자연관+토지관, 물질적 풍요+정신적 풍요 = 생명영속사상의 반영 * 주민 합일의 민주적 환경조성 및 토지수용력이 반영된 공간설계 * 진경관(자연)+상징경관(신앙의례공간)+인조경관(살림집)을 통합하는 정주 경 관 * 실존(주거지, 경작지, 배후지)과 이상향(누정, 강학처, 재실 등)의 접합 * 광역 문화공간의 조화미, 울동성, 위계성, 연속성, 인간적 척도 공간의 설정
정주환경 입지와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과 조산으로 이어지는 축선상의 안온한 분지, 환경사형 吉處 * 지리+생리+인심+산수를 통합한 卜居地, 이념상의 길지+실용상의 적지 * 藏風得水+背山臨水, 안전성이 보장된 전착후관의 양명한 삶터 * 주거지+경작지+배후지, 윗마을+아랫마을, 마을길+물길이 결합된 공간 경영 * 대소종가, 소작농, 민가 등 주종침의 위계가 반영된 서열적 토지이용 * 견제와 균형, 수용력이 반영된 토지이용과 동선체계, 나뭇가지형 마을길 * 생성(살림집)-풍요(누정, 서당)-초월(별서)-회귀(사당, 서원)의 상류주거문화 * 강학처(서원, 서당, 향교 등)와 풍류 및 생활문화 편의시설, 유교적 지표시설 * 마을축제(민속놀이:무형문화요소), 민간신앙 제례문화(당제, 기우제) 전승 * 동구, 장승, 솟대, 마을숲, 물길 등 식별되는 영역성과 공동체 구현요소 * 대동계, 장터, 두레, 향약, 축제, 관혼상제, 마을제례 등 공동체 프로그램 * 윗마을+아랫마을, 신분, 동족 또는 이족이 통합된 자족적 공동체 구축
주거환경과 생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 물길과 마을길, 풍토와 경관 등 을 고려한 에너지 보존형 마을 * 상류, 중류, 서민주택 등으로 구성된 기와집과 초가집의 위계적 구성 * 자연환경조건에 순응하는 주거향과 조망, 내외부공간을 결합시킨 주거형태 * 자연녹지축에 삶터가 접속된 광역환경의 생태네트워크 구축, 생태적 수용력 * 생물서식공간, 생태통로, 환경림, 水石木 등이 어우러진 생태경관+생태마을 * 자연에너지의 활용, 미기후의 고려, 자원 재활용 등 낮은 entropy 체계 구축 * 內庭+外庭, 內園+外園, 內苑+外苑, 眞景+象徵景+人造景이 접합된 全景觀 * 환경심리적으로 안정된 조망권과 종가와 누정, 관아와 성문 등의 경관관찰점 * 마을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개방적 경관과 외부에서는 폐쇄된 경관 * 지표경관요소의 설정, 8景과 5山5水 등 승경지의 광역경관상, 향토경관상 * 마을안팎의 영역표시 지표물(산수지리, 제례처, 마을숲, 우물, 종가, 누정 등) * 살림집, 신앙의례시설, 강학처, 생활문화편의시설로 분화된 영역 * 어귀길, 동구, 마을마당, 안길, 샛길로 분절되는 기승전결의 울동적 마을길

4. 결 론

우리의 선조들은 배산임수+장풍득수 하는 안온한 터전에 鎭山을 축으로 주변의 아름다운 산세에 물길을 갖춘 福居地 즉, 정주환경(배후지+주거지+경작지)을 이루어, 자연과 인간이 소우주에서 相和하며 공생하는 친환경적 사회문화공간을 구축하였다.

여기에는 바람과 물의 순환 이치(天), 그리고 땅의 형성과 여건(地)을 이해하여 사람(人)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코자 했던 경관짜임으로서의 풍수지리와 같은 한국적 사상과 원리, 공간경영 모델로서의 환경 순환적 이론, 자연환경을 광역 환경 시스템으로 판단하는 생태적 사고, 자연환경을 훼손하기 쉬운 존재로 인식하며 불완전한 땅을 보완하고 비보·염승하는 경관보존 및 보완, 친환경적인 공간인식체계와 민주적인 환경설계 원칙의 반영 등 정주환경 커뮤니티 디자인에는 생태학적 합리성과 규범이 깊숙이 작용되고 있다.

즉, 상택(相宅)으로서의 입지선정과 생태적 수용력 범위 내에서 생활문화를 결합한 자연 순응형 토지이용, 유연성이 확보된 적정 주거 밀도와 동선체계, 일조와 조망 그리고 통풍 등 에너지 보존과 조망권, 환경 심리적 안정성을 반영한 공간구조의 틀 속에서 인공이 절제된 자연산수식 풍류처, 강학처, 신앙 의례처 등이 개입되고 있다. 또한, 하천과 경작지, 마을 숲과 뒷동산, 노거수와 조경수, 텃밭, 물길과 습지, 뜰과 담 등 水·木·石이 어우러진 녹지체계와 토지이용, 背景(뒷산, 후원)→近景(안길, 살림집 마을)→中景(바깥들, 어귀길, 하천)→遠景(앞산)의 스카이라인과 토속경관상, 內庭과 外庭, 內園과 外園, 內苑과 外苑을 결합한 green·blue network 등 지속가능한 생태인자들이 네트워킹을 이루어 점(eco-patch) + 선(eco-corridor) + 면(eco-matrix) = 생태적 토지 모자이크가 구축되는 경관생태학적 건전성이 표출된다.

이처럼 우리 땅에 펼쳐진 전통마을과 같은 정주환경은 자연조건에 대한 적응성 그리고 토지수용력 범위 내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되고 절약되며, 공동체 사회가 생명력 있게 살아 숨 쉬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성이 환경설계 규범 속에 깊숙이 작용되고 있는바, 현대적 의미의 생태적 규범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건전한 생태마을이자 친환경마을이 됨을 발견하게 된다. 아울러 인간의 도와 윤리를 실천하는 장으로서 섬세한 이미지,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징성과 은유를 유력한 수단으로 생태적 지평을 넓혀나가는 대지예술의 환경미학 공간임을 감지하게 된다.

참 고 문 헌

- 김한배, 1992. 한국전통마을과 읍성의 경관성, 도서출판 조경
- 박광재 외 2, 2002. 한국전통주거의 계획개념을 응용한 공간구성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 성종상, 2004. 생태코드로 읽는 고산 윤선도 원림, 한국의 전통생태학, 사이언스북스
- 신상섭, 2000. 전통마을 공간구성에 작용된 환경설계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권 1호
- 이규인, 2004. 하회마을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전통생태학, 사이언스북스
- 이도원, 2004. 생태학은 옛사람의 삶 안에 있었다, 한국의 전통생태학, 사이언스북스

임경수, 2004. 생태마을 가꾸기와 마을 전통의 복원, 한국의 전통생태학, 사이언스북스

한필원, 2004. 한국 전통마을의 환경친화성, 한국의 전통생태학, 사이언스북스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DAC&qnum=606946